



르네상스 미술 연구를 통해 삶과 인간의 본질을 묻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속에는 삶의 본질이 들어 있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은 단순한 미술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람이 지켜야 할 여러 가치들, 이를테면 철학적인 문제들과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 같은 삶의 본질도 모두 녹아들어 있어요. 이 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내 스스로 대답을 구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700쪽이 넘는 방대한 저작물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미술》을 쓴 임영방 선생은 자신의 노작을 이처럼 소박하게 설명한다. 일흔넷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단정하고 정갈한 모습, 즉견선문(卽見禪門)을 피하면서 깊이 사유하는 모습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전인적 인문주의자의 반듯한 기품마저 느껴진다. 선생은 최근 이 책의 출간기념회를 가졌는데 동료들과 후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출간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사람이 왜 태어나고 자라는가, 세상을 왜 함부로 살면 안 되는가를 르네상스 예술을 공부하며 얻었다. 그 맥락과의

미를 밝히는 데 여생을 걸었고, 그 40년 큰 짐을 이제야 벗었다. 르네상스의 뒤끝처럼 나는 허무하다.”

무엇이 이토록 선생을 허무하게 한 것일까? 방대한 작업 뒤끝의 무력감일까? 선생은 학자로 지낸 40년 삶에 지워졌던 짐을 벗었다고 표현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 미진하고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고백한다.

“집필하는 데만 꼬박 4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 전에 자료 수집과 고증을 위해 이탈리아 현지를 수십 차례 탐방했죠. 그런데 책이 나오고 보니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인간과 삶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긴 했지만 스스로 완벽한 연구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즘 재관 짤 때 수정할 곳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서는 학자로서 선생의 몸에 배어 겸양과 염결함이 느껴진다. 선생에게 있어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연구는 곧 삶에 대한 배움과 삶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그는

르네상스 미술의 도상(圖像)에 나타난 인본주의 정신, 진실된 인간성, 그리고 비례와 균형 등 과학적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양적 삶의 모습에서 인간과 삶의 진실을 보았다고 말한다. 선생은 무엇보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한다.

“과학, 기계, 문명, 정보, 기술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성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성 회복을 주된 과제로 삼았던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의 이런 말 속에는 자신의 학문적 열정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다.

스물한 살의 유학, 그리고 동백림 사건

이번 책 출간을 통해 국내 르네상스 미술 연구사의 한 획을 그은 임영방 선생은 1929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외래의 문물이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게 수입될 수 있었던 인천의 환경은 막연하게나마 그에게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학문세계에 대한 동경을 갖게 했다. 당시 중국과 홍콩을 오가며 무역업을 해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한 그의 선친은 자신의 아들이 천주교의 사제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소년 임영방은 선친의 뜻과는 달리 의사가 되고 싶었다.

“해방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먼저 자리를 잡고 계신 홍콩으로 가족이 이주를 했어요. 처음 나라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참 설레었죠. 홍콩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영어를 배우고 1950년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때가 스물한 살의 나이였죠.”

청운의 꿈을 품고 의욕적으로 시작한 유학이었지만 그의 파리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당시 파리에 들어와 있는 한국인은 신부나 유학생 정도가 전부로,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이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현지어에 서툴러서 기본적인 강의내용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일제 치하에서 변변한 책 한 권 읽을 수 없었던 나는 현지 학생들과 달리 철학과 미학 등 기초적인 교양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학습 지진아가 될 수밖에 없었죠. 대학 입학시험에도 거둬 떨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루 네 시간씩만 자면서 현지어를 익히고 책을 파고들었어요.” 그 결과 그는 파리 입성 6년 만에 파리대학 철학과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철학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집념과 끈기가 얻어낸 결실이었다.

파리대학에서 선생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르네상스 미술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샤스텔 교수이다. 샤스텔 교수와의 만남은 임영방이 걷게 될 학문세계의 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름방학이 되면 샤스텔 교수와 이탈리아 현지의 르네상스 유적을 찾아 기행을 했어요. 그 경험은 아주 소중한요. 책에서 보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니 확실한 이해가 되더군요. 샤스텔 교수로부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파리대학교 대학원에서 <1871년~1940년 사이의 파리의 공공건물 내의 벽화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동양의 청년은 귀국을 택하지 않고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던 유네스코에 취직하게 된다. 그러던 1965년, 그는 선친이 회갑을 맞이하자 일시귀국 한다. 물론 회갑잔치만 치르고 다시 파리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해의 귀국은 그에게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정치를 실시하면서 유럽의 유학생들에게 간첩죄 혐의를 뒤집어씌웠던 것.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동백림사건이다. 유럽 유학생 중 가장 선배격이었던 임영방 역시 공안정치의 시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형사들에게 끌려가 모진 심문을 받았다. 혐의가 없던 그는 곧 풀려나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파리로 돌아가는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심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년을 앓았거든요. 그 후 내가 배운 것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는 대학에서 27년 동안 많은 후학을 양성하다가 1992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임명되어 5년 동안 관직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서 보낸 5년은 책으로 배운 미술이론을 실무와 합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관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열정적인 저술활동에 매달리고 있다.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도 원고와 씨름중이다. ‘중세 유럽미술의 도상’을 주제로 글을 쓰는 중인데 내년 중 출간이 목표다. 그는 원고지에 직접 글을 쓰는데 타이핑 작업은 선생을 25년 동안 내조한 부인 조향순 여사가 맡아서 한다. 위대한 작업 뒤에는 헌신적인 내조가 뒷받침된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된다. 저자의 말에서 선생은 출간에 조력한 아내와 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인본주의자의 따뜻한 면서도 미더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